‘함파우관’에서 소리의 물결을 느끼세요

체험 · 숙박 · 관리동 구성
남원 술미안길 4월 말 개관
좌도농악 등 우리국악 체험

4월 말 개관을 앞둔 함파우 소리체험관(함파우 : 물결이 머무는 곳)이 남원 관광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술미안길 14-19번지 일원에 자리 잡은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농악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체험동과 한옥 숙박동(4동, 50인 숙박 가능), 관리동으로 구성돼 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총 90억원을 들여 좌도농악의 전수와 공연, 자료보존을 위해 건립되었다. 남원은 좌도농악의 중심지로 읍·면·동 마다 농악단이 운영되고 있는 전국 유일의 고장이며, 현재 호남 지역에서 좌도농악 고유의 부들상모 놀이를 보존, 구사해오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남원시립농악단은 각종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는 남원농악 외에 우리 국악도 접할 수 있다. 민요 및 판소리 배우기 등 다양한 국악체험을 통하여 남원이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시내에 근접해 있고 주변에 천문대, 김병종 시립미술관, 도예촌, 춘향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있어 최고의 관광입지 조건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남원에서 손꼽히는 정남향 명당으로 땅의 기운이 왕성한 곳이다. 숙박동은 전통구들방식으로 참나무 장작만을 사용하고, 체험관 앞 저수지도 기존의 저수지를 살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리명상길, 생명의 노래길, 덕음산 솔바람길이 연결돼 있어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명소로도 기대된다. 전통 한옥 숙박체험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농악과 소리의 경계를 넘어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관광 중심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통 한옥 숙박동을 모태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기업체, 동우회, 행정기관 등 단체관광객들에게 관광과 체험, 교육·연수 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체험팀을 꾸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수요자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중국 여행사와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약이 추진되고 있으며, 살빼기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심각한 황사에 지친 중국인들이 맑은 공기와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환경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정유재란 때 명나라 병사 3천명 등 1만명이 잠들어 있는 만인의총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개관되면 춘향테마파크~광한루원~남원예촌~예가람길~만인의총~교룡산성으로 이어지는 관광남원의 밑그림이 완성될 것을 보인다.

/남원=유영철기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에 한세현씨 임명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은 한세현(60·사진) 피리 명인을 23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18년 3월22일까지 2년이다.

한 신임 예술감독은 1982년부터 33년 동안 국립국악원에 재직하면서 전통예술 보존과 전승, 발전에 앞장서 왔다. 한세현류 피리산조를 통해 민속악 분야의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쳤다.

국립국악원은 "한세현 예술감독은 민속음악의 레퍼토리 확장을 통해 국내외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민속음악의 뛰어난 예술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민속악단 브랜드작품 제작을 통해 새로운 공연양식을 구축하고, 연희극 개발 등 공감형 콘텐츠로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무대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예술감독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비롯해 국민과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융성’의 소임을 다하는 국립예술단체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출판분야 청년인턴 참여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출판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협업하여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은 사업에 참여할 출판 관계 기업과 청년인턴(만 15~34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3개월간 인턴 지원금(최대 18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년간 별도의 취업 장려금(39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 대해서도 근무 기간에 따라 별도의 취업지원금(최대 18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누리집(www.work.go.kr/intern) 또는 붙임 포스터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군산 채만식문학관 새 단장 ‘산뜻’

채만식 선생의 삶과 여정 그리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채만식문학관’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 건물 외장 화사하게 채색

채만식 선생의 삶의 여정과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군산채만식문학관이 새 단장을 마쳤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전라북도민체전 등 대형행사를 앞두고 손님맞이 일환으로 문학관을 화사하게 채색하여 아름다운 건물로 새로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일제강점기 작가 채만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국에서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한 미관저해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시는 건물도장 공사를 비롯해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시관내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문학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한 전시관 행정 서비스 질을 높였다.

채만식문학관 관계자는 "군산시를 근대문학의 도시로 이미지화 하는데 주력하고 유명작가 초청 문학 강연 및 탁류길 문학기행 활성화, 문화체험 학습장 운영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며 "근대 문화와 문학의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가수 김광석 20주기 추모전

‘만나다 · 듣다 · 그리다’ 주제로

가수 김광석(1964~1996) 20주기를 맞아 추모 전시회가 열린다.

음반·공연 기획사 루비레코드에 따르면, 4월1일부터 6월26일까지 서울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에서 ‘김광석을보다 전; 만나다·듣다·그리다’가 펼쳐진다.

김광석은 탄생 50주년인 2014년부터 다양하게 재조명되고 있다. 명반으로 통하는 4집이 리마스터링 LP로 재발매됐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연출 김명훈), ‘그날들’(연출 장유정), ‘디셈버: 끝나지 않은 노래’(연출 장진), ‘그 여름, 동물원’(연출 박경찬) 등 그의 노래를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등이 잇따라 선보였다.

1990년대 문화를 조명하며 주목받은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2013)에서는 그의 노래와 육성, 모습이 흘러나왔다. JTBC ‘히든싱어 2’(2013~2014)의 마지막회 주인공으로 그를 모창하는 이들이 나와 향수를 자극했다. SK텔레콤의 기업브랜드 캠페인 ‘연결의 힘’의 두 번째 프로젝트 ‘연결의 신곡 발표’의 하나로 그의 미공개곡이 ‘그런걸까’라는 제목으로 20년 만에 빛을 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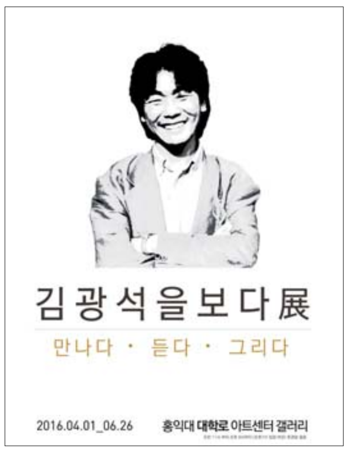
고인과 그의 음악을 추억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유족과 팬들에게서 제공받은 유품을 공개한다. 자필 악보와 친필 일기, 메모, 통기타를 비롯해 그와 관련된 LP앨범 등을 선보인다.

특히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유년시절부터 아빠로서 김광석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약 300여 점의 유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루비레코드는 "전시의 오디오 가이드는 김광석의 실제 육성으로 제작, 김광석이 들려주는 김광석의 이야기를 전시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알렸다. 8000~1만2000원. www.김광석을보다.com

한편 전시 기간에 맞춰 김광석 음악을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후배 뮤지션들이 디지털 싱글을 매달 한 곡씩 발매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정해은기자



김광석 특별전 홍보 포스터

전주역사박물관 29일~4월 1일 ‘토요박물관나들이’ 참가자 모집

전주역사박물관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가족과 함께 토요박물관 나들이’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우리는 이웃, 세계문화체험’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문화생활 자료를 모아 만든 ‘다문화꾸러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3개국의 생활용품을 만져보고 대표유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집은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재료비 참가자 부담)이다.

참가 신청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jeonjumuseum.org)로 하면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063-228-6485~6)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3월 24일〉

▷쥐띠
48년생: 지병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60년생: 세밀함을 요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이성을 주의하라.
84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매사 70%에 만족하라.

▷소띠
49년생: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61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
73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어려움이 있어도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줄 것이다.
85년생: 동기간에 화합하기 좋은 운.

▷호랑이띠
50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것이 좋은 운.
62년생: 다른 사람과 시비수가 생길 수 있는 운.
74년생: 자신보다 힘든 상황의 사람에게 베풀면 덕이 돌아온다.
86년생: 다른 사람과 관계가 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토끼띠
51년생: 상황에 비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운이다.
63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쉽게 풀리니 기쁨이 있는 운이다.
75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발생한다.
87년생: 상황에 대해 탄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운이다.

▷용띠
52년생: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운이다.
64년생: 금전손실이 따르는 운이니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운이다.
76년생: 윗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8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으나 분수밖의 일은 불리하다.

▷뱀띠
53년생: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면 좋은 결실이 따를 것이다.
6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니 요심을 버리고 큰일은 삼가라.
77년생: 평소 소홀했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운.
89년생: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압받을 일이 생기나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말띠
54년생: 지갑은 열고 말은 줄이라는 것은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66년생: 윗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운이다.
7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90년생: 평소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양띠
55년생: 먼저 베푸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이다.
67년생: 나서지 말고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라.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발생하나 일회성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91년생: 점심식사로 인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과식을 삼가라.

▷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문서가 들어오는 운.
68년생: 작은 막힘이 따르나 후반에는 잘 풀리니 지나친 근심은 불필요한 운이다.
8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른다.

▷닭띠
57년생: 그동안 베풀었던 덕이 돌아오는 운으로 타인과의 얽혀있던 매듭이 풀리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69년생: 후반에는 풀리게 되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81년생: 타이밍과 화합이 중요한 운이다.
93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구인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운.

▷개띠
46년생: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아 상황판단능력이 저하되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는것이 좋겠다.
82년생: 금전의 손해가 발생하니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추진하지 말자.

▷돼지띠
47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59년생: 재물의 유동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른다.
71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운.
83년생: 좋은일과 어려운일이 함께 발생하니 일이 잘 풀릴때에 그 다음일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운이다.